

전남도, 활기찬 노년 생활 돕는다... 일자리 6.7만개 확대

(2026년까지)

올 노인일자리 예산 2044억 투입
공익활동형 등으로 나눠 추진
수행기관 79곳에 전담인력 투입

전남도가 올해도 어르신들의 소득 지원과 건강유지, 대인관계를 통한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 자리를 확대한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를 6만 7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일자리 5만6948개로, 지난해(5만 2938개)보다 7.6% 늘었고, 예산도 145억원이 증가한 2044억원이 투입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민간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민간 기업에 노인인력을파견하는 '취업알선형'으로



전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 중인 '실바카페'

/뉴스5

나눠 추진한다.

공익활동형은 가장 많은 5만788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 노인 가정 등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하는 노노(老-老)케어, 취약계층 지원, 취미 생활지도, 체험활동을 하는 경륜전수 활동, 지역사회 환경 개선, 공공의료·복지시설에서 봉사하는 공공시설 봉사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3492개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노인시설·장애인 시설 업무보조 등을 추진한다.

시장형 일자리는 일자리 2038개를 제공한다. 식품·공산품 제조·판매, 소규모 매장 운영, 유희경지를 활용한 농산물 공동 경작·판매, 택배 물품 배송, 청소·시설관리 등이 포함된다.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630개 사업

을 추진한다.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파견해 일정 임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수행기관 79곳에 전담인력 385명을 투입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관리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 활동과 사회구성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농어촌)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 자리를 늘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양질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남 고성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탈바꿈

고성군의 전통시장인 고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부 경남 오일장 중 최대규모인 고성시장에 2년간 총 10억 원 내의 사업비(1년 차 4억 4000만 원, 국비 50%)가 투입돼 ▲토요문화공연, 먹거리 장터 등 문화 콘텐츠 연계사업 ▲상인교육, 컨설팅 등 자생력 강화사업 ▲시장 페스티벌, 대표 먹거리 콘테스트 등 활성화 이벤트가 추진된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목포시가 지역경제의 싹틔움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 확대 운영하는 사업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시는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의 예산을 확충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강화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사진)와 이철우(왼쪽 사진)경북지사가 상호 양 지역에 고향 사랑기부금을 기탁한 후 피켓을 들고 기부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경북도

전남지사-경북지사, '따뜻한 동행' 실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응원

NH농협은행 방문해 서로 기부
전남·경북 상생협약 후 협력 강화

기영호남 상생협력과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로 따뜻한 동행 실천에 나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영록 지사와 이철우 지사는 각각 NH농협은행 전남도청 지점과 NH농협은행 경북본부 방문해 500만 원을 서로 기부하고, 상호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했다.

양 지역은 지난 2019년 전남-경북 상생협약 이후 상생을 위해 각종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이번 기부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맞아 서로 성공적 추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영록 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기부 동참 분위기를 이어나기 위해 양 지역 시·군의 자발적 참여도 이어가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기부 행사가 영호남인들이 교차 기부하고, 전남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겨울 송어 만나러 무안으로 오세요"

오는 14일부터 양일간 축제

전남 무안군은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쫄면하고 잘친 겨울송어를 소재로 1월 14일(토)부터 15일(일)까지 해제면주민다목적센터와 양간다리수산시장 일원에서 펼쳐질 '2023년 무안 겨울 송어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2023년 새해 첫 축제이자 해제면 소재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먹거리 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길러 콘텐츠로 '황금송어를 잡아라', '원데이클래스 송어초밥 만들기', '무안 농수산물 구이터', '농수특산물 짬뽕 경매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및 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하동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예산 확대

주택수리비 등 추진

하동군이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펼친다.

대폭 확대된 사업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한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지원' 사업 ▲귀농인 주거안정을 위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등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량이 각각 15개 이상 늘었다.

새로운 시책은 ▲귀농·귀촌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사관학교 운영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

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1대1 밀착관리 귀농헬퍼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또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를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슬기로운 농촌생활을 담은 가이드북 제작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계속사업으로는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정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귀농인의 자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지원사업인 귀농인 창업농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지원

창원특례시는 3high(금리·물가·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작년과는 달리 제로페이 가맹 사업장 조건을 삭제하고, 지원 비율을 시설개선비 공급금액의 70% 이내로 조정해 더 많은 소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시스템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비용 공급금액의 7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2월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군

전남 농업분야 평가 '3관왕'

해남군이 2022년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에 이어 친환경농업 분야 최우수 기관, 식량·원예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농정 분야 평가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정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역대 고소득 농업인 720명 최다 육성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논 타작물 재배 182ha, 온라인 소비 확대에 따른 '남도장터' 입점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2023 고창 방문의해

홍보 서포터즈 출범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향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일 군청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총 32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위촉장 수여와 서포터즈의 역할·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